

속 기록

- 회의명 : 제370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시 : 2024. 04. 05.(금) 14:00 ~ 17:17
- 장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
- 출석위원 : 정병국 위 원 장
김미라 위 원
김진각 위 원
서승미 위 원
이훈경 위 원
장미진 위 원
장인주 위 원
정갑영 위 원
정정숙 위 원
정종열 위 원
홍성태 위 원
- 불참위원 : 배은주 위 원

1. 성원 보고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제370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는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안) 등 의결안건 8건, 보고안건 4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보고안건 중 국회지정사업 관련 안건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국회지정사업 담당팀과 주관단체의 보고를 통해 사업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고 올바르게 집행될 것인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위원님들의 현장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지정사업 주관단체가 오후 3시경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김효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자대표로 참석하였고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언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원총괄팀 김한수 과장을 포함한 사무처직원 2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총 12인의 위원님 중 11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 선언

정병국 위원장 :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정병국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전차회의는 2번 있었습니다. 제368차 회의와 더불어 제369차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회의자료 3페이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2월 23일에 개최한 제368차 전체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되어서 1건은 수정의결, 3건은 원안의결되었으며, 2월 29일 서면으로 개최한 제369차 전체회의의 의결안건 2건은 모두 원안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 의 결 사 항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1046호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성범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운영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문예진흥법 제32조 그리고 소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의거해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난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3개의 소위원회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경영전략 소위원회는 기획조정팀이 간사팀으로 문예기금 안정화 대책 마련, 기관 경영전략수립 그리고 사무처 직원의 인권 등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자 합니다.

예술가치확산 소위원회에서는 예술정책후원센터가 간사팀을 맡고 예술후원활성화 캠페인과 프로그램 개선, 문화지표 개발, 세제혜택 도입 대책 마련 등에 대한 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마지막 윤리인권소통 소위원회에서는 지원총괄팀이 간사팀을 맡고 장르별 현안 및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현장 소통, 지역 협력 강화와 이를 위한 과제 발굴, 예술인 처우개선 방안 마련, 성평등 예술환경 조성, 장애예술인 창작환경 개선안 등을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이런 방향성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실행과제들을 확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운영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임기는 오늘 구성을 시작으로 향후 1년 간 유지가 됩니다. 소위원회 개최 후에 간사팀에서 그 결과를 정리해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회람을 한 후에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위원님들의 참여 소위원회가 확정되면 첫 번째 회의에서는 주요 기능 및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과 추진 일정 설정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외부위원의 참여가 가능하므로 이 사항도 첫 번째 회의에서 함께 다루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 이메일로 위원님들께 3개의 소위원회 중에 어떤 소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실 지에 대해 고려를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경영전략 소위원회는 김진각 위원과 서승미 위원님. 그리고 예술가치확산 소위원회에서는 김미라 위원님과 서승미 위원님. 그리고 윤리인권소통 소위원회에서는 김진각 위원님, 배은주 위원님, 이훈경 위원님, 장인주 위원님, 정종열 위원님께서 참석 의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선택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견을 주시면 명단을 포함해서 수정 의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의결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죠.

정갑영 위원 : 저는 경영전략 소위원회에 넣어주세요.

정병국 위원장 : 정갑영 위원님은 경영전략 소위원회요. 홍성태 위원님은요?

홍성태 위원 : 저는 작년에 했던 게 예술후원활성화니까 예술가치확산 소위원회를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홍성태 위원님은 예술가치확산 소위원회요. 그러면 정정숙 위원님께서요?

정정숙 위원 : 저는 죄송한 말씀인데요. 3개의 소위원회를 관심 있게 보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소속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장미진 위원님은요?

장미진 위원 : 예술가치확산 소위원회에 참석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예술가치확산 소위원회에 장미진 위원님.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다 말씀을 주셔서 해당 명단을 포함해서 저희가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제가 어디에 신청했다고 하셨죠?

정병국 위원장 : 경영전략 소위원회와 윤리인권소통 소위원회요.

김진각 위원 : 윤리인권소통 소위원회가 아니라 후원활성화 연장선상에서 예술가치확산 소위원회로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김진각 위원님은 윤리인권소통 소위원회가 아니라 예술가치확산 소위원회와 경영전략 소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1047호 2024년 학전소극장 임차 및 운영 지원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강양원 극장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양원 예술극장장 : 극장운영팀장이 지금 창작산실 오페라 실연심의를 하고 있어서 대리 참석을 했습니다.

우선 작년 11월부터 여러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학전소극장 폐관 관련해서 위원회가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그 방법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결과, 오늘 전체회의 의결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논의가 숨 가쁘게 진행되면서 그 과정과 논의결과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전소극장 임차 및 운영 지원 계획에 대한 의결안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의 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현장업무보고에서 위원회는 단체들의 극장 대관의 어려움에 대해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의 의견으로 임차 가능한 공연장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경에 학전 소극장 폐관 소식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언론에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회의자료 붙임1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위와 같은 경과 속에서 사무처는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8억 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로 대표 소극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학전 소극장을 운영하는데 사무처는 학전 소극장의 공연 역사를 고려하고 장소성을 활용하여 어린이·청소년 중심 극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극장운영팀으로 2023년 7월에 이관된 어린이·청소년 예술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선정된 작품 중에 일부가 발표될 수 있는 플랫폼 극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대학로를 찾는 가족 단위의 시민들을 위한 대학로 예술로소품 사업을 올해 12회로 확대하여 진행하는데 연계 방안을 찾아 활용할 예정입니다.

시설현황은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5층 건물로 200석의 소극장 그리고 2층과 4층에 위치한 연습실, 사무실 2개를 임대할 예정입니다.

운영 방식은 민간경상보조로 지정공모를 통해서 아시테지 한국본부가 운영하게 되지만 아시테지는 어린이·청소년 기획사업을 하게 되고 극장운영부가 시설 개·보수부터 사업 운영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사무처는 학전소극장 운영지원사업을 통해서 하나의 소극장 운영지원을 넘어서 위에서 언급한 공공극장으로서의 노력과 함께 어린이·청소년 지원사업 그리고 위원회 타 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전체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보증금, 극장 임차료, 장비 임차료가 4억 6,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설 개보수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요. 필수 안전 관련 개보수와 장비 임차료를 최대한 절약해서 기획프로그램에 조금 더 예산을 넣어 풍성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지금 예산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봤을 때 놓쳤던 부분인데요. 임차료에 장비 임차라고 하면 외부에서 장비를 임차해 오는 비용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극장에 있는 조명, 음향시설에 대한 장비 임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선욱 극장운영팀 차장 : 담당하고 있는 김선욱 차장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임차비는, 일단 이 지원금의 성격이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자산매입이 안 됩니다. 자산 취득이 안 되기 때문에 아시테지에서 운영할 때 꼭 필요한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전이 나가면서 두고 간 사용가능한 중고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학전 측에 일정 금액의 임차비를 주고 쓸만한 물건을 임차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훈경 위원 :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장비를 임차하신다는 말씀이죠?

김선욱 극장운영팀 차장 : 예. 저희 무대기술팀 전문인력들이 가서 쓸만한 장비 그리고 재사용할 장비들을 이미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전 측에 일부 장비를 임차하고 어린이·청소년 극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 장비를 임차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훈경 위원 : 저도 극장을 쓰는 제작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쭙보는 건데요. 거기에서 임차한 장비만으로 그 극장을 운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양원 예술극장장 : 예.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전 측 소유장비를 일부 임차하고, 부족한 장비는 추가 임차 예정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1억 정도를 그 비용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이훈경 위원 : 이 비용예산표 외에 1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양원 예술극장장 : 아니요. 이 비용 안에 학전소극장에 있는 장비들 비용이 있고 이후 공연의 기획팀에서 필요한 장비들이 임차되어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훈경 위원 :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1억이 이 예산의 어느 항목에서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정병국 위원장 : 잠깐만요. 어쨌든 극장이 있으면 극장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기본 장비들이 필요하잖아요. 학전이 쓰던 것 중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사용하고 안 되는 것은 외부에서 임차해서 쓰는 돈이 다 합쳐서 이것이라는 겁니다.

강양원 예술극장장 : 맞습니다.

이훈경 위원 :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안에는 사업으로 하는 사업비는 따로 책정되어있는 것은 아닌가요? 운영비나 사업비.

강양원 예술극장장 : 뒤에 보시면 일단 4,000만 원이 기획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1억 4,400만 원이고요. 기획프로그램비가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훈경 위원 :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4,000만 원의 기획프로그램비와 인건비 외 홍보운영비 등은 전혀 예산이 없는데 과연 아시테지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보고 이것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조금 더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선욱 극장운영팀 차장 : 학전 소극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기획프로그램도 진행하지만, 대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기준으로 봤을 때 이에 맞는 서비스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객석 단가의 80%만 적용해서 대관하게 될 것이고요. 그 대관 수입은 보조금법상 다시 사업에 재투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동률 70%로 계산을 했을 때 2,700만 원 정도의 대관료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홍보나 기획프로그램에 재투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공간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 위원회가 극장을 직접 임차하여 운영하는 것은 예산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아시테지 한국분부를 지원하여 학전 소극장을 어린이극 전용극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반영하여 직접 임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훈경 위원 : 그러면 전반적인 부분 중에서 아동극 기획은 아시테지가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고요?

정병국 위원장 : 그렇죠.

이훈경 위원 :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이 계획이 원래 ‘학전’이라는 소극장이 존치된다. 문을 닫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폐관을 막자는 취지에서 접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사무처에서 공연장을 물색하던 찰나에 학전 소극장이 나왔기 때문에 확보하는 측면도 있지만요. 그런데 학전이라는 소극장이 폐관을 한 상황에서 이 소극장이 갖는 의미. 물론 여기에서 오랫동안 공연을 해왔지만 사실 학전이라는 브랜드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르코에서 어떻게 하면 이를 살리고 조금 더 역사성을 가져갈까라는 고민에서 이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학전은 문을 닫은 상황에서 더군다나 아시테지 한국본부라고 하는 아동·청소년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예술단체에 이것을 맡겼는데요. 지금 스케줄을 보면 올해는 아마 아동·청소년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대관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아동·청소년 쪽으로만 하다가 1년이 갈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의문일 수도 있는데요. 학전이 이렇게 문을 닫은 상황에서 굳이 우리 아르코에서 이것을 인수해서, 8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아동·청소년 공연을 중심으로 하지만 다른 대관사업도 한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적절한지? 어차피 건물 자체가 민간건물이고 GS 소유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관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제가 학전이라는 소극장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그 가치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임대를 했는데 본질과는 동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아시테지 한국본부가 지정공모를 통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위탁 운영을 할 능력을 갖춘 업체인가요?

강양원 예술극장장 : 민간경상보조를 통해서 사업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업목적에 맞는 역량, 신뢰성, 보조사업자의 의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아시테지 한국본부가 다년간 어린이·청소년 공연사업을 진행해 왔고 여러 공공기관과 협업을 잘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년간 공연 및 축제를 진행했는데요. 전용극장이 없어서 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사업 중에 올해 7월에 들어온 어린이·청소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수시공모를 앞두고 있는데요. 수시공모가 끝나고 나면 수시공모로 선정된 단체들이 아마 극장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야 합니다. 대학로에서 극장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사업과 학전을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대관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제가 좀 보완설명을 드리면, 처음부터 학전을 전제로 해서 새로운 소극장을 찾았던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 2월, 3월에 현장업무보고를 할 때 현장에서 정책고객들이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대관료지원사업 폐지 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더 이상 대관료지원에 대한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대안으로 공간을 장기임대해서 대관을 지원하는 쪽으로 해보자고 해서 대학로에 있는 모든 극장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군데 나온 곳은 있었지만 규모 등이 우리가 원하는 규모에 합당하지 않아서 못 하고 있던 차에 학전 소극장 폐관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것을 하는 건 어떠냐?” 라고 해서 실무진들이 가서 검토했는데요. 그러니까 무대기술자들이 검토를 했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른 것들보다는 낫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학전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측면에서도 우리가 승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문체부 장관님과 연극계 관계자들의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인수하겠다.” 라고 했지만 문체부의 실무담당자들이 “직접 당장 이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예술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라는 문의를 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라고 해서 급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전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먼저 접근했던 것은 아니고 소극장이라는 공간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미까지도 되살려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몇 차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김민기 선생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김 선생님의 의사는 “너무 감사하기는 한데 본인이 만약 잘못되면 사후에 학전이 이쪽으로 휘돌리고 저쪽으로 휘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것은 자기 당대에서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 당장 우리의 의지를 믿고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걸 본인은 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진척을 못 했습니다.

다만, 일단은 우리가 공간 활용이라도 하는 차원에서 가능하고, 이후에 그것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이름은 못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해 왔던 학전의 사업들이 의미가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한 공간 뿐 아니라 <지하철 1호선>이라고 하는 대학로의 작은 소극장에서 시작된 공연 때문에 우리나라 뮤지컬 산업이 굉장히 확산되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도 사업을 그렇게 설계해서 접근하면 이름은 못 쓰더라도 정신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무진과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공간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8억 원이 큰 것이지만 1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기획 사업을 할 수 있고 대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8억 원을 써서 올해 사업을 여러 차례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전부 다 그것을 따져봤거든요. 큰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1048호 2024년 공연예술 창작주체 지원사업 별도공모 추진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창호 공연예술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21페이지 안건번호 제 1048호 2024년 공연예술 창작주체(창작공간 중대형 공연장) 지원사업 별도공모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주요경과를 정리했는데요. 저희 공연예술 창작공간 지원사업이 기존에 9억 3,800만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가되면서 단순 민간 소극장 운영지원사업에서 창작공간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중대형 공연장도 포함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023년도에 실시한 202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는 총 27건이 접수되었고 저희가 공모결과를 발표할 때 총 24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잔여예산에 대해 앞으로 중대형 공연장 지원사업 추진을 기획해 보겠다고 구두보고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 사무처에서 2024년도 대국민 업무보고와 함께 공모 잔여예산에 대해서 중대형 공연장을 어떤 방식으로 공모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담심의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3월초에 공연예술 분야 장르별 위원님 4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내용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극장의 입장에서는 대관 위주로 운영되던 기존 중대형 공연장 운영방식에서 벗어나서 예술가와 단체 간 공동기획으로 특성화 극장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가 있고요. 예술가나 단체의 입장에서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공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대형 공연장에서의 공연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결론적으로 사무처 입장에서는 중대형 공연장으로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서 접근성도 높이고 중대형 공연장을 통해 우수단체의 후속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협업 모델을 발굴하자는 데 취지가 있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민간이 설립한 중대형 공연장 300석 이상을 임차 또는 소유하여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자격은 공연법상 등록공연장이어야 되고요. 저희가 공연장 운영의 안전성을 위해서 지난 정시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5년 이상의 운영 이력을 보유한 단체로 지원대상을 설정했습니다. 특히 종교나 언론사 관련 공연장은 제외하였고요. 야외, 서커스, 놀이공원(관광지), 백화점 내 공연장도 제외하였습니다.

특히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제일 애매했던 부분이 교육기관 쪽의 공연장이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공모심의에서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들로 구성된 단체의 예술활동 지원은 제한하고 있지만 사실 공연장은 명확하게 지원을 제한한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사업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하는 건 잔여예산을 통해서 새로운 협업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7개월 동안 단년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8억 3,900만 원이고 앞서 보고 받으신 학전소극장 지원이나 저희 창작공간 공모 지원결정이 30억 그리고 저희가 4개 사업으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서 중장기 단체 중에 공연장을 운영하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창작공간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2개 단체의 예산은 감소분 지원을 포함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자부담금 10% 이상은 필수 책정입니다.

지원조건에서 좀 고민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중대형 공연장이다보니 민간 소극장과 다르게 다양한 주체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통상 경상경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40~50% 정도 지원했던 것을 좀 낮췄습니다. 이 부분을 30%로 낮췄고요. 특히 공동기획을 하는 공연 참여단체나 예술가가 별도로 이 공연장과 공동기획을 하게되면 대관료나 부대시설 사용료는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기획 공연은 연 2건 내외로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히 공동기획의 우대사항으로는 국내외 유망 예술가나 단체와의 공동기획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공연예술 분야에서 국내외 경연대회나 주요 예술상 수상 등의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공연 기회를 갖지 못한 예술가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발굴해서 이런 중대형 공연장을 통해 한번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우대사항으로 포함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소재의 공연장에서는 비수도권에서 발굴된 우수작품을 유치하는 경우에도 우대조건이 될 것이며, 반대로 비수도권 소재의 공연장에서는 수도권 아니면 전국적인 우수작품을 유치하는 경우 그리고 장애인 관객 접근성이 높은 경우에 우대사항으로 포함했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4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대사항의 예시로 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단체나 공연장 쪽에서 기획을 할 때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 추진 일정은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4월 2주부터 약 2주간 받을 예정이고요. 결과발표는 6월초 그리고 사업추진은 12월에 종료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방법은 실제로 어느 공연장의 어느 장르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접수된 상황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고요. 일단 적격자 지정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그렇게 심의건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기본적으로 “서류심의 외에 가급적이면 인터뷰 심의를 해 보는 게 어떨겠느냐?” 라는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붙임1 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31페이지의 붙임3 자료를 보시면, 사전에 중대형 공연장 운영현황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 자료를 제공 받아서 관련 공연장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마지막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종교, 언론사 관련 공연장이나 야외, 서커스, 놀이공원(관광지), 백화점을 제외한 공연장 수인데요. 59개가 나왔습니다. 중공연장은 52개 정도가 되고 대공연장은 7개 정도로 예상 정책고객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붙임2 자료는 지난 2024년 정기공모 때 창작공간 지원사업에 관한 선정 결과가 되겠습니다.

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중대형 공연장 대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먼저 궁금한 것은 소극장 지원금이 얼마정도가 되죠?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30페이지 표를 보시면 예산 자체는 50억 원인데 30억 6,100만 원이 정시공모 때 배정이 되었습니다.

김진각 위원 : 30억 6,100만 원.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30페이지 붙임2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진각 위원 : 소극장인거죠?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사실 정시공모 때는 소극장으로 제한을 하지 않았음에도 거의 다 소극장이 신청했습니다.

김진각 위원 : 그리고 이번에 50억 원인 것이죠?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잔여예산 8억 3,900만 원에 대해서 중대형 공연장으로 시범사업 단년도로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진각 위원 : 결국 그렇게 되면 중대형 공연장도 서울에 대부분 몰려있고 서울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데요. 물론 중대형 공연장의 지원 필요성도 인정이 되지만 이것은 공연장이 밀집된 대학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결국에는 소극장의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그렇다고 중대형 공연장을 손 떼라는 것은 아닌데요. 이 비율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소극장의 피해들인데요. 소극장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중대형 공연장은, 안 그래도 공연이 중대형 공연장으로 많이 몰리고 있고 통계데이터에도 그런 식의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부가 중대형 공연장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는 듯한 이미지로 비취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정책의 방향성과도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원칙이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 소극장과 중대형 공연장의 매출 등을 따져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적정한 금액인지를 파악해서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격 정도만 봤는데 중대형 공연장의 실질적인 매출 구조는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못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소극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취지에 맞느냐는 저희 실무진에서도 좀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도 올해 창작공간지원이라는 사업으로 나갔는데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해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기준으로 보면 60%는 소극장 지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학전을 포함하면 비율은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잔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올해 진행 결과를 잘 보고 보정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열 위원 : 저도 동의하면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지원사업 자체가 대관하는 공연장을 지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예술가나 예술단체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소극장 자체를 지원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소극장은 자체적인 기획능력이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불임1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악 같은 경우에는 6개 팀이 신청했는데 3개 팀이 선정되었다는 얘기는, 음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르에 비해서 장기적인 공연을 하는 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획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소극장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중대형 공연장에 지원을 시범적으로 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지원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것도 좋은 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계속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한 번 테스트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음악 부분이 항상 공연장 지원을 할 때 약간 소외되고 있다는, 불리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악 공연은 단기로 끝나기 때문에 음악 기획인력들도 상당히 적고요. 그래서 음악 부분에 대한 지원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 중대형 공연장을 지원하면서 기획 시리즈 같은 공연을 계속 발굴하면 그것 또한 예술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 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결국 이것을 설계한 이유는 중대형 공연장에서 공연할 작품이 있는데 이런 지원체계가 없으니까 그런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대형 공연장에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2회 이상 기획 공연을 하게 유도하고요. 그 대신 그 기획공연은 대관료를 받지 않게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대형 공연장을 필요로 하는 예술단체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기획해서 “공연장을 빌려서 해라.” 라고 하면 그런 공연단체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결부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각 위원님이나 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사를 할 때 그런 조건을 정확하게 부여하고 그런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중대형 공연장이라고 하면 이 사업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중대형 공연장을 운영하는 단체들이 기업이거나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획공연 횟수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훈경 위원 : 중대형 공연장에 지원하는 것도 좋고 소극장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도 좋고 방향성은 두루두루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염려되는 지점은 “올해 1번 해 보고 방법을 찾겠습니다.”, “다른 선택이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라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올해 생기고 내년에 없으면 그것에 대한 타격이 제일 많이 받는 것은 현장예술가들이기 때문에 올해 이것을 하실 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세심하게 만들어서 내년에 확장되거나 지속하는 방향을 찾아야지 올해 해보고 내년에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염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각 위원 : 메시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중대형 공연장을 정부가 확대·지원한다는 현장에 잘못된 메시지, 시그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게 전달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중대형 공연장 지원사업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만들 수 없어요? 매칭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그런 취지를 담아서 사업명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술단체나 예술가들에게 중요한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니까 중대형 공연장을 필요로 하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그것을 중대형 공연장을 갖고 있는 기관과 매칭하는 형식으로 풀어가면 어떤 측면에서는 김진각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훈경 위원 : 저도 김진각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너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만 보면 극장에 대한 지원이라고 저도 이해가 되었던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공연으로 가면, 그것은 결국 창작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되어야지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수정의결로 하고 명칭을 바꾸고요. 그렇게 해서 명칭을 바꾼 것을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집행은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네 번째 의결안건은 안전번호 제 1049호 2024년 문예진흥기금 추가 공모사업 전담심의위원 구성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지영 지원총괄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2024년 문예진흥기금 추가공모사업 전담심의위원 구성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전담심의제 시범운영 방안에 대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시범운영을 위해서 정시공모시에 창작의 과정, 국제예술교류네트워크지원, 청년예술가도약지원 그리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미리 잔여예산을 확보해 놓았고요. 금번 추가공모를 시행하여서 이 전담심의제 시범적용을 하도록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달 수정의결된 바와 같이 전담심의제 심의그룹을 2개 그룹으로 나눠서 1개 그룹은 창작의과정, 국제예술교류네트워크지원, 청년예술가도약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전담심의 그룹으로 활동하고 1개 그룹은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구성 규모는 지난달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장르별 전담심의관 1명 그리고 기 구성된 후보단에서 4명을 위촉하는 것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의 경우에는 사업의 특수성이나 심의운영 방식이 다른 사업과 조금 차이가 있으므로 각 장르별 2명 그리고 문학과 다원예술 분야는 복합으로 묶어서 2명으로 하여 후보단에서 위촉하는 분은 총 14명으로 구성을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구성 경과를 보시면, 지난달 2월 말에 의결 후 각 장르별 위원님과 장르별 문학지원팀, 시각다원예술팀, 공연예술팀 그리고 극장운영팀이 위원님과 논의 후 3배수 후보안을 마련하고 그 후보단 안에서 섭외 우선순위까지 결정하여 각 후보군 안에서 결정된 위원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최종 승낙하신 분들을 전담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3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첫 번째 그룹인 창작의과정, 국제예술교류네트워크지원, 청년예술가지원에 대한 심의위원은 전체 전담심의관을 포함해서 35명 그리고 그 외에 후보단에서 위촉한 부분은 그 안에서 2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령대를 보시면 현재 30대는 안 계시고 주로 40대에서 60대고 50대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를 보시면 성별의 경우에는 남성이 45.7%, 여성의 경우 54.3%로 큰 격차가 보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분포를 보시면 전담심의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이 다소 높은 수치로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이 24명 그리고 비수도권에 11명으로 68.6%입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은 31.4%로 해서 낮은 수치로 구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각 장르별 세부 명단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의 현재 구성현황을 보시면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의 경우에는 30대가 1인부터 60대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고 현재 50대가 52.9% 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58.8%로 10인 그리고 여성의 경우 41.2%로 7인으로 이것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 분포의 경우에는 수도권은 12인 그리고 비수도권은 전담심의관을 포함해서 5인으로 확인이 됩니다.

저희가 현직과 심의참여 이력도 간단하게 기재해 놓았는데요. 대부분 기존 회의에 수차례 참여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연령대도 이전보다 젊은 분들로 심의위원후보단을 구성해 주셔서 현재 80년대생까지 고루 분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결이 되면 심의위원 확정 명단을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공개된 상태에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전담심의위원 위촉식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예술가의집 라운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촉식 관련해서는 현재 김미라 위원님과 서승미 위원님께서 참석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는 4월 16일부터 5월 2일까지 15회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결과에 대한 발표와 최종 마무리는 아마 5월 중순까지 소요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 간단하게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시작을 하게 되었던 전담심의위원회에 대한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시고자 했으나 일정상 참여가 어려운 분들이 많으셔서요. 당일 오리엔테이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담심의를 하실 분들이 어떤 취지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한다는 것들을 정확히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당일 오리엔테이션 내용도 조금 부가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당일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획(안)이 거의 확정된 상태라서 전체회의가 종료되고 메일로 먼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된 내용은 참석하시기로 한 전담심의위원님들께 직접 위원장님께서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고요. 전담심의제 그리고 전담심의위원 구성현황과 취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류재수 본부장님께서 먼저 앞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개 사업에 대해서 각 팀장이 참여하여 사업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 사업별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등 심의기준까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본 행사는 그 정도로 종료하고 각 장르별로 예술가의집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장르별로 모여 전담심의관들께서 기존에 이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연구한 부분이나 심의기준과 같은 부분에 대해 처음 참여하신 심의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질의응답 등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후속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담심의관을 내부 공모를 통해서 7인을 확정했잖아요.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서 저도 그분들의 역할이나 그분들이 어디까지 할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분들이 그동안 연구하고 스테디한 내용들을 분야별로, 심의관별로 보고를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본인들도 스스로 놀랐다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까지 20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여러 차례 심의하는 과정도 봤고 준비도 했지만 본인들 스스로 한 번도 해 보지 않

왔던 과거에 심의한 결과 3년 치를 전체적으로 통계를 낸 것입니다. 분야별로 전부 다 분석하고요. 그래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 어떤 문제점이 있고 현장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캐치할 수가 있었고요.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지 몰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보기에 그 정도의 분석과 데이터를 가지고 전담심의위원들에게 향후 우리가 심의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모니터를 하고 팔로우 업을 계속 해 나간다고 하면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주 열정을 가지고 전담심의관들이 역할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방향을 잡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해 왔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아마 팀별로 설명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본 안전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섯 번째 의결안건은 안전번호 제1050호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이어서 김지영 지원총괄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이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규정 개정(안) 안전으로 의결을 올린 게 2가지가 있는데요. 지원심의 운영규정 개정(안)과 심의업무 공정처리 규정입니다. 앞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2개 안전 모두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항을 저희 심의 관련 규정에 추가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저희 지원심의 운영안 제8조에 심의위원회 해촉 부분에서 현행에는 “해촉 사유에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심의에 참여한 경우” 이렇게 1가지만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심의 제척과 더불어 “회피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심의에 참여한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48페이지를 보시면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9조에 심의 관련자의 의무와 관여금지로서 3항에 제척에 관한 부분이 있고 5항에는 회피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심의를 운영할 때 사실 제척의사를 밝히는 것보다는 대부분 회피에 해당하는 부분을 많이 기재해 주심에도 실제 운영규정에는 이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신 경우가 해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하고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여섯 번째 의결안건은 안전번호 제1051호 심의업무 공정처리 규정 개정(안)입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이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심의업무 공정처리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도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규정을 각 관련 규정에 추가로 기재함으로써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지금 심의운영 그리고 제척 및 회피 처벌과 관련하여 저희 공정처리 규정(안)이 기재되어 있고 그와 관련하여 심의위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그리고 직무수행지침으로 일단 기재되어 있는데요. 심의운영과 관련하여서도 이해충돌방지에도 운영규정을 추가하였고요. 제척

및 회피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이해충돌방지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6조 2항에는 임직원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 전담심의관이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게 됨으로써 임직원에 대한 부분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처벌에 대한 부분도 이와 관련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에 처벌에 대한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함께 준용하기 위해서 제11조 1항에 추가하였습니다. 관련하여 5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에 위 부인인 심의위원이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몇 번 더 검토를 하였는데요. 제2조 정의에 보시면 “공무수행사인” 이라고 불리는 범주 안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위원회 심사 등 각종 지원심의 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리가 되고 저희 위원회 위원장은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9조를 보시면 공무수행사인이 저희 직원 혹은 비상임위원들에게 준용되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관련사항에 한 번 더 명시하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전담심의위원들에게 이 사항을 몇 번 더 강조해 드림으로써 관련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일곱 번째 의결안건은 안전번호 제1052호 임원 및 사무처장 보수규정 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박우영 인사소통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영 인사소통팀장 : 안전번호 제1052호 임원 및 사무처장 보수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부지침에 따라서 관련된 임직원 모두의 연봉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규정상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보고를 드릴 안건은 2건인데요. 임원 및 사무처장에 대한 보수 규정 그리고 직원 보수규정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임원 및 사무처장 보수 규정 개정(안)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관련한 사항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지침이 1월 7일에 내려와 요청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지침 상 제시한 기본연봉 2.3%, 임원 및 사무처장의 연봉을 전년대비해서 2.3% 인상하는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규정 개정(안)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관련 건은 문체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한 건이고 문체부 사전협의 이후에 보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 내부 규정심의위원회를 거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올리는 안건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 56페이지 비고에 2.3%를 잘못 쓰신 거죠? 23%라고 되어 있어서요.

박우영 인사소통팀장 : 2.3%입니다. 작게 되어 있는데 2.3%입니다. 사실 정부의 임금인상률은 2.5%인데 임원과 관련된 부분은 기재부의 지침 상 보통 정부의 임금인상률 이하로 설정하게 되어 있고요. 이 지침 통보에 따라서 준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여덟 번째 의결안건은 안전번호 제1053호 보수규정 개정(안)입니다. 이어서 박우영 인사소통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영 인사소통팀장 : 예.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원과 관련된 보수규정에 관한 부분인데요. 보수규정도 똑같이 위원회 의결사항에 포함되는 규정개정 안건입니다.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의거 정부의 임금인상률 2.5%를 반영하는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규정개정 상 크게 2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기존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위 직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간부 직책에서 전담심의관이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사실 간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위 자체가 직원의 처우에 맞게 진행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직무규정 상에 의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초과근무수당을 형평성에 맞게 지급하고자 하는 부분과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임금인상률을 반영하기 위해서 규정 개정(안)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참고해 주실 사항은 저희가 임금인상률을 2.5% 전 직원 동일하고, 지금 규정 개정(안)은 직급별 초임 임금인데요. 실제 임금하고는 다르겠지만 초임 연봉을 동일하게 2.5%로 맞춘다고 하면 전년도에 승진했던 5급 승진자와 당해연도 5급 승진자에 대한 형평성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초임연봉 같은 경우는 1.25% 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지금 59페이지에 보면 7급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정규직이 일반직1과 일반직2가 있습니다. 일반직2는 어떤 거냐 하면, 지난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기존 정규직과 하나로 묶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정규직은 일반직1이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 된 사람들은 일반직2가 된 겁니다. 차이가 뭐냐 하면, 일반직1은 예산상 기금 운용비의 인건비 항목에서 인건비가 나오고 일반직2는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문체부도 기재부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술위원회만 그런 것이 아니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노사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 사항인데 일반직1은 6급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직2는 7급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자체가 차별이다.” 제가 그렇게 인식을 했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리고 “정부의 방침에 이것도 따라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수용하자고 해서 현재 28명이 일반직2의 7급으로 대우를 받고 있어서 올해 4월 1일부로 일반직2의 직급7을 아예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췄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명칭은 일반직1과 일반직2가 상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고사항은 10분 동안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11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정병국 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고 사항

정병국 위원장 : 이상으로 심의의결을 마쳤습니다. 보고안건은 2024년 국회지정사업 정선아리랑 K-컬처 글로벌프로젝트 추진계획 보고 등 4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2024년 국회지정사업 정선아리랑 K-컬처 글로벌프로젝트에 대해서 정창호 공연예술팀장이 보고를 드린 후 정선군청 안석균 시설국장을 비롯한 김재성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장재덕 아리랑팀장,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재열 본부장과 극단 산의 윤정환 대표가 참석하여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지정사업 보고를 들으신 후 관련하여 질의 및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2024년 국회지정사업 정선아리랑 K-컬처 글로벌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는 국회 본회의 확정 후 저희가 3월에 사업계획 검토를 요청했고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내용 이후 보완사항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2)번의 사업개요를 보시면 사업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8월 25일이고요. 사업장소는 영국의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어셈블리공연장입니다. 출연진은 총 25명이고 '아리아라리' 작품으로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코리안시즌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총 23회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최는 정선군이고 주관은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입니다. 지원액은 3억 원이고 자부담(지방비) 7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처 검토내용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향후 추진일정으로 사업승인을 4월에 마무리하도록 계획을 승인하고 사업 이후 수행과 모니터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문가 평가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진행하든지 가급적 현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정해지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정선군청 관계자들과 정선아리랑문화재단 관계자들을 들어오시도록 하죠. 어느 분이 보고를 하실 건가요?

안석균 정선군시설국장 : 안녕하세요. 정선군 시설국장 안석균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우선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모든 지원사업은 공개적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엄격한 심사절차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 이 안건은 국회지정사업으로 올라온 안건입니다. 국회지정사업으로 올라올 수 있는 안건은 이미 예산심의가 끝난 후라서 원래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는 경우거나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국회에서 지정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정선아리랑 K-컬처 프로젝트는 어떻게 해서 국회지정사업이 되었는지 이유와 향후 이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고, 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내년에도 사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실 것인지를 주안점으로 두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세요.

안석균 시설국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회지정사업인 정선아리랑 뮤지컬 K-컬처 글로벌프로젝트 사업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정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정선아리랑 뮤지컬인 ‘아리아라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한중일 문화 컬처로드를 시작으로 정선아리랑 등 국악과 전통예술 및 3D홀로그램을 융복합한 뮤지컬 퍼포먼스 형태로 제작되어 그간 278회의 공연을 하였으며, 특히 지난 2023년에는 호주 애들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위클리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예술공연으로 선정하여 올해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세부 추진계획, 예산집행계획의 순서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안석균 시설국장 : 예. 먼저 지난 2023년도에 저희 ‘아리아라리’ 작품이 호주 애들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많은 성원을 받았고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애들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했을 때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팀이 현장에 와서 자료 확인도 하시고 공연예술 작품들을 둘러보시다가 저희 ‘아리아라리’ 작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에든버러 축제 준비위원회 쪽에서 저희 작품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경에 축제 총괄 준비를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 작품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직접 정선에 오셔서 이 작품을 보셨습니다. 보시고 한 두 달이 지난 8월경에 “이 작품이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초청해서 공연해도 충분히 대한민국의 문화를 보여줄 수가 있겠다. 그러니 와서 공연을 해 줄 수가 있겠냐?” 라고 초청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8월에 이런 의견을 주셨을 때는 24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주기가 다 지나간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미 국회 제출을 앞에 둔 이런 단계까지 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에 온 소중한 기회를 살릴 방법이 있겠냐?” 이게 자주 있는 기회도 아니다 보니까 이 기회를 살려보자고 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국회지정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기회를 살리는 게 저희한테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나라 아리랑과 전통문화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렇게 부탁을 올리고자 하는 게 되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이것은 올해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윤정환 연출자 : 저희 공연은 2018년 동계올림픽의 한국 대표 공연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6년째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그러니까 에든버러 축제에 나가는 사업으로 계속 할 것이냐고요?

윤정환 연출자 :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시설국장님, 그러면 내년에도 국회지정사업으로 갈 겁니까? 본예산에 이것을 포함시킬 겁니까?

안석균 시설국장 : 본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많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한번 정도는 이런 절차 상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가능해요. 저도 국회의원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본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하라는 겁니다. 내년에 또 다시 지정사업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석균 시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 주최 측으로부터 왜 국회사업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충분한 소명을 들었고요. 이 행사를 지난 2018년부터 지속해 오셨던 열정과 내용의 완성도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의견은 없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훈경 위원 :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선에서 지속적으로 공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든버러에 나갈 때 배우들의 구성이나 비용은 충분한지가 궁금합니다.

윤정환 대표 : 정선 공연은 26명이 공연을 하는데요. 에든버러는 현재 예산상 전원이 가지는 못하고요. 스태프까지 합쳐서 25명으로 배우는 18명이 참여를 합니다. 정선에서 공연 런닝타임은 1시간 15분인데 에든버러에서는 60분으로 축약을 해서 할 예정이고요. 세트들은 최대한 영상으로 만들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질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미 호주에서 그 공연 버전을 해 봤기 때문에 에든버러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정정숙 위원 : 저는 아주 지엽적인 것을 한 가지 여쭙보고 싶은데요. 지금 국고보조금이 3억이고 자기부담금이 7억인데 수익금은 0원입니다. 시도보조금이 0원이고요. 자기부담금은 사적인 것일 수가 있어서 제가 여쭙보기가 죄송한데요. 내년에도 7억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을까요?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석균 시설국장 : 예. 저희 군에서는 문화진흥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도 7억은 확보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7억은 군의 예산인가요?

안석균 시설국장 : 예. 군의 예산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시군보조금이 0원으로 나왔죠? 잘못된 것인가요?

안석균 시설국장 : 총 사업비가 10억 원이고요. 국비가 3억 원이고 저희 군의 사업비가 7억 원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홍성태 위원 : 전체 예산을 보면 10억으로 딱 맞췄는데 남거나 부족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안석균 시설국장 : 당연히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에든버러에 출전한다는 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국회지정사업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에든버러에 출진한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요. 저희도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모니터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결과가 좋으면요. 하여튼 간에 지금까지 지역에서 이러한 공연물을 계속적으로 공연하고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선군에서 이렇게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공연 결과를 가져오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안전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끝났으니까 돌아가셔도 됩니다.

안석균 시설국장 : 고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안석균 시설국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다음으로 두 번째 보고안건인 2024년 국회지정사업 창작오페라 코리아웨딩에 대해서 유병은 교류협력팀장이 보고를 드린 후 주관단체인 뉴서울오페라단 홍지원 단장과 김현주 실장이 참석하여 사업계획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지정사업 보고를 들으신 후 관련하여 질의 및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은 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2024년 국회지정사업 창작오페라 코리아웨딩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에 2024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확정 후 저희 쪽에서 2023년 사업 모니터링 보고서를 단체 측에 전달해 드렸고요. 3월까지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명은 창작오페라 코리아웨딩이고요. 공연장소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입니다.

공연기간은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억 3,600만 원이고 저희 예산이 3억이고 자부담이 3,400만 원입니다.

76페이지 사무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프로그램 구성의 작년 현장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서 번역 및 자막을 위한 전문가를 채용하고 언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계속 진행을 해 왔고요. 2022년, 2023년 저희 위원님들께서 현장모니터링을 진행해 주셨고요. 올해도 이훈경 위원님과 사무처 직원이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를 가서 모니터링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모니터링 결과는 어땠나요?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서승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서승미 위원 : 제가 지난 2023년도 모니터링에 다녀왔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체의 전문성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기금집행 적정성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현장 코디네이터의 기획, 홍보팀의 역할부재로 인해서 오히려 문화원 쪽에서 거의 말다시피 한 3가지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고요. 이번 사업계획서에서도 지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서 개선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방향을 주안점으로 보고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 첨부자료의 지정사업 평가 부분에 자세히 적었으니까 참고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면 창작오페라 코리아웨딩에 대해서 뉴서울오페라단 홍지원 단장과 김현주 실장은 들어와서 자리해 주시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예, 뉴서울오페라단 홍지원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우선 뉴서울오페라단에서 오신 분들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예. 안녕하세요, 뉴서울오페라 홍지원입니다.

김현주 뉴서울오페라단 실장 :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주 실장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뉴서울오페라단은 지난해에 이어서 네 번째 국회지정사업 창작오페라 코리아웨딩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가지고 오셨는데요. 지난해에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다시 국회지정사업으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회지정사업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신지? 그리고 지난해에 현지에 가서 공연을 했던 결과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 그리고 스스로 평가에 대해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국회지정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첫 번째 국회지정사업으로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케이팝이라든가 대중문화들은 굉장히 동남아시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희 오페라 같은 경우는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저희 오페라의 수준이 이제는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중국과 같은 곳의 학생들이 한국에 많이 와서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오기를 갈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페라의 불모지랄까요. 한국을 갈망하는.

정병국 위원장 : 단장님, 제가 여쭙본 것은 이것을 거기에서 공연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절차상 왜 국회지정사업으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절차상의 이유요? 저는 이 오페라가 아무래도 그쪽에서 반응도 좋았고요. 그래서 국회 쪽에다가 그 나라 쪽에서 요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국회 쪽으로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국회 어디로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교류를 하면서.

정병국 위원장 : 교류를 하는데 국회 누구한테? 국회 어느 부서로 요청을 한 것이죠? 정확하게 답을 하세요. 홍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뉴서울오페라단에서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국회로 “이것에 대해 또 와서 공연을 해 달라.” 라고 해서 국회에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그러니까 저희 쪽으로.

정병국 위원장 : 제 질문에 답을 하세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예산은 국회에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아니, 국회에서 왜 지정을 하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저희 작품을 봤기 때문이에요.

정병국 위원장 : 누가 봤기 때문이에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인도네시아의 어르신께서 이 작품을 봤기 때문에.

정병국 위원장 : 인도네시아 어르신은 누구입니까?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초청기관에서.

정병국 위원장 : 초청기관이 어딴니까?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아이콘TV라고요.

정병국 위원장 : 아이콘TV의 어르신이 누구예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대표님과 이사님께서.

정병국 위원장 : 대표님이 국회 어디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저희 쪽에 요청을 해서.

정병국 위원장 : 저희 쪽이에요 국회예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저희 뉴서울오페라로 부탁을 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뉴서울오페라단에 인도네시아 측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뉴서울오페라단에서는 그 다음에 절차를 어떻게 밟으셔야 되나요?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공모를 해야 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당연하죠. 아시면서. 첫 번째는 그럴 수가 있어요. 절차상 과정에서 빠졌거나 대상사업이 없을 경우 한번 정도는 국회에 부탁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국회가 동의를 하면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저도 국회에 있을 때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지정을 해줄 때는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는 꼭 절차를 밟아서 하십시오. 미리미리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보통은 그것을 국회에서 수용을 해요. 그런데 또 다시 왔어요.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서서는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에 응모를 해 봤던 적이 있으신가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예, 저도 과거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응모를 하고 받아보신 적도 있었나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응모를 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겁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는 국회지정사업으로 연거푸 받고 어떤 단체는 정상적으로 공모를 해서 떨어지고. 그렇게 불공평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다른 단체나 예술인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하시겠어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단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데요. 내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이런 절차로 이 사업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저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안 하실 거죠?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마지막이라고 하시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안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 아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K-오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다른 K-컬처에 비해서 덜 소개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동남아시아는 오페라 자체가 약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오페라나 다른 나라의 오페라가 소개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사람들이 오페라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전통음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면 전통에 강한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이것을 계속 활용한다면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국회지정으로 사업을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상관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즘 한류에 부합하는 K-오페라를 소개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그렇다면 계속 같은 오

페라로 나올 것이 아니라 현재 작곡가 말고도 다른 작곡가도 계시고 그 작곡가도 그 이후에 오페라를 쓰셨을 것이고요. 현 시대에 조금 더 부합하는 그런 오페라를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작년에 모니터링에 참가를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아마 리포트를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리포트 안에서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이나 다른 모니터링 리포트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 향후 계획이라든지 어떤 것을 보완하겠다는 부분이 보이지가 않고요. 세부 추진계획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에 모니터링 한 것 때문에 좀 자세하게 봤는데 똑같이 붙여놓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나라만 바뀌고 똑같은 형식을 취한다면 좀 곤란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홍 단장님, 작년 모니터링 지적사항을 가지고 계신가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항목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음악 완성도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케스트라 완성도는 높았고요. 합창단의 내용 전달이 어려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성악가들이 한국말로 오페라를 하면 발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정확하게 가사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발음연습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 내용 전달의 어려움. 음향 마이크의 문제인데요. 사실 성악은 마이크를 원래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극장 시스템이 우리 한국처럼 좋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요즘은 한국에서도 다 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배로 음향을 사용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부적절한 자막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어, 영어로 거의 최고 수준의 번역가를 모셔서 다시 처음부터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출력의 부족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전통무용과 사물놀이의 부족함을 말씀하셔서 안무를 하시는 선생님과도 2회에 걸쳐서 안무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의 말씀은 이것은 창작이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나오는 무용을 보여주고 싶은 것인데, 그리고 앞에 즐거운 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국적인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바꿀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사물놀이 부분은 저희가 공연뿐만 아니라 극장 앞마당에서도 한국 문화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오페라도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연 전에도 이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결혼식은 축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물놀이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연출가들과 스태프들이 의논한 결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애인비하는, 저희도 폼추나 절름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대본을 다른 표현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폼추나 절름발이가 아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여기에 교류대상 선정 관련 준비부족을 말씀하셨습니다. “클래식 공연 수준이 낮고 오페라 공연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우리 한국이 뛰어나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해외 유학을 다들 갔다가 왔고 거기의 교수진들도 좋은 교수진들이 사실은 많습습니다. 저희도 오페라가 없었다가 이렇게 오페라가 활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전무했지만 지금은 오페라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가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 음대가 문을 닫고 있고 실업자들이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서로가 교류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의 유학을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의미가 사실은 큼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객 및 홍보준비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지 주관 관련 업무역할이 전무한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전무한 것은 아니었고요. 부족한 것은 인정하고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홍보 등 주관처에서 저희의 업무를 정확하게 따져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과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정정숙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네시아의 오페라가 약하다고 할 때 약한 이유는 그들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전통적인 파워가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의 무형유산과 관련해서도 인도네시아는 지도부 등에서 세계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무형유산이라고 하면 인도네시아를 손꼽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지금 교류를 하신다고 하셨고 지금 기대성과에도 보면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류를 할 때는 항상 선 조사를 통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가게 되는데요. 우리의 코리아웨딩만 전파하려고 하는 일방적인 관점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무형유산 중에서도 웨딩과 관련된 중요한 대목을 파악하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것을 반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서 한 대목 정도라도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접목하는 창작적인 요소를 1~2초라도 넣으셔서 지난번 작품과는 조금은 다른,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갑영 위원 : 예산구조가 자부담 10%고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었다고 하셨네요? 국고보조가 90%가 들어가 있는데요. 예산구조 내역을 보면 너무 참혹해요. 차라리 10% 관두고 다 달라고 하시는 게 나을 정도입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는 여기에 넣지 않은 비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넣어야지 왜 안 넣습니까?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저희는 자부담 10%를 넣으라고 해서 거기 예산에 맞춰서 만든 것이고요. 사실 모든 부분에서 저희는 이 비용보다 훨씬 더 추가가 됩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럼 설명을 해 보세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비자비 같은 것이고요. 여기에 지휘자, 연출자와 아무리 했던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연습을 3개월 정도 합니다. 그래서 연출자 사례비를 3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작은 비용이죠. 3개월에 비하면요. 이런 부분에서 일단 여기 3억 원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3억 원과 자부담 10%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비용을 저희가 담지 않은 것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 비용은 사례비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명목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정갑영 위원 : 여기에 다 있어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다 있는데 이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3개월 연습에.

정병국 위원장 : 큰 예산이 아니고요. 정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3억 4,000만 원의 틀에 맞추느라 추가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못 넣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지휘자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휘자비 등은 사례비에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례비는 뭘니까?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연출자도 300만 원보다 저희가 더 줍니다. 이런 비용은 저희가 준다는 거죠.

정갑영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네요. 연습하는 과정이 3개월 필요한데 3개월 동안 나가는 비용도 있는데 그 비용은 여기에 계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예. 그런 비용도 계산하지 않고요.

정갑영 위원 : 그러면 거의 오페라단을 유지하는 비용이네요. 1년 동안 오페라단은 이것 말고 뭘 하십니까?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그리고 개런티가 이것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은 저희가 넣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훈경 위원 : 단장님 죄송한데요. 예산서의 사업규모 총사업비라는 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총 비용을 쓰시고 저희한테 요청하는 금액이 얼마고 자체적으로 쓰시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적어내는 게 예산서죠. 차라리 그러셨으면, 예를 들어 5억 원이 필요한데 국비 3억 원을 요청했다고 하면 2억 원은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시는 구나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겠는데요. 자체적으로 쓰신 비용은 하나도 쓰지도 않고 “저희가 예산을 더 쓰는데 계획서엔 쓰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총사업비라는 건 이 사업을 하시는 데 필요한 총사업비가 얼마인지를 쓰시고 저희한테 요청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요청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예.

이훈경 위원 :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지금 몇 년째 계속하신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건비는 매년 나가야 되는 거니까 잡힐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대 같은 경우 매해 새로 제작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쓰시던 무대를 쓰시는 거잖아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예.

이훈경 위원 : 그런데 무대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것도 더 들었는데 이만큼만 쓰신 건가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무대 이 부분은 산출내역에서 저희가 실수한 것 같고요.

이훈경 위원 : 어떤 것을 실수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저희가 무대, 소품은 저희의 작품이지만 디자인료도 포함되어 있고 보관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선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대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가서 이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실 큰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을 조금 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빌리게 되면 입던 것도 3,000~4,00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저희도 한국에서 오페라를 할 때 저희가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만들어놓은 것도 3,000~4,000만 원합니다.

이훈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대충 쓰시지 말고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죄송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작년 정산보고를 하셨나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했습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예산항목을 정해놓고 이것을 정산하게 되면 정산하기가 거의..... 단장님 말씀대로면 정산하기가 불가능해요. 영수증하고 다 안 맞을 건데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이해가 안 갑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이렇게 제출해 놓고 정산도 여기에 맞췄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이렇게 쓸 겁니다.” 라고 해서 예산을 받아 갔어요. 그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 연말에 정산보고를 하잖아요. 정산보고를 할 때는 증빙서류가 다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맞췄다고 하면 허위보고가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정산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돈을 받아갈 때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여기에 제시를 했잖아요? 정산은 이것에 따라서 “돈을 어떻게 집행했습니다.” 라고 해서 증빙서류를 다 갖고 와서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은 그것 말고 추가적으로 얼마가 더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 것은 영수증을 어떻게 발행받았는지? 그러면 그것과 맞지 않는 것을 여기에 맞춰서 넣었다고 하면 그 자체는 허위보고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꼬치꼬치 따져 묻는 것은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더 들어가는 게 있으면 “맞추라니까 그냥 맞춘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보고할 때는 저희가 추가로 들어간 비용까지 다

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지난해 것은 어떻게 정산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다시 점검을 하고 나서 이것을 처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는 처리가 안될 것 같아요.

정갑영 위원 : 작년에 하셨던 건데요. 작년에도 번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작년에는 태국어고 올해는 인도네시아어입니다. 또 영어 번역도 다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어로 다시 번역을 합니다.

서승미 위원 : 현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태국어 번역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고요. 또 공통어인 영어도 같이 넣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다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계획서와 팸플릿 안에 있는 연출인가? 지금 확인은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인원이 좀 달라졌어요.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기획인가 어떤 것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낸 계획하고 실제로 팸플릿과 실행계획이 다르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이 되고요. 제가 주안점으로 본 것은 지난 평가자료를 검토하면서 그 부분이 잘 시행되고 있는가? 그 부분이 제가 보는 모니터링의 관점이었고 이후에도 개선되어야 하는 방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개선되지 않고 똑같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보완되어서 다시 한번 제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인주 위원 : 한 가지 여쭙보겠는데요. 지금 제출하신 것에 자카르타에서 공연하시려고 하는 타만 이즈마일 마즈키 대극장. 사진을 제출하셨잖아요? 그러면 단장님께서 혹시 이 극장에 가보셨나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5번 갔습니다.

장인주 위원 : 이 극장 사진이 맞나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맞습니다.

장인주 위원 : 오페라극장은 어느 정도 역사가 있는 극장인가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1968년에 설립된 오페라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오페라극장입니다.

장인주 위원 :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찾아봤는데요. 이 주소에 그 극장을 찾을 수가 없어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제가 4번 갔습니다.

장인주 위원 : 제출하신 서류에 있는 주소로 구글에서 검색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확인을 하고 다음에는 제대로 된 것을 제출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인도네시아 문화부에서 운영하는 극장입니다.

장인주 위원 : 알겠는데요. 정확하게 연결이 안 되니까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그리고 오늘 접수를 안 해서 아직 예산집행이 안 되었는데 공연을 5월에 하나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5월 15일과 16일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위원장님, 정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 회계감사보고가 되지 않으면 아예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는데 일단 2023년도 사업은 정산회계보고가 완료가 되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례비에 연출이 얼마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사례비를 썼을 것 아닙니까? 사례비를 주면 그 사람한테 확인서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확인서를 받으면 단장님이 추가적으로 준 것을 거기에 썼어요, 안 썼어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추가적으로 한 것은 저희가.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정산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원을 저희 쪽에 총사업비로 말씀해 주셨고요. 2억 7,000만 원이 국비 예산이고 3,000만 원이 차부담이면 3억 범위 내에서만 증빙을 하는 것이 지금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일단은 이 범위 안에서 증빙만 되면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결국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례비 등에 대한 것은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확인서를 써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식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사례비는 어떻게 받아요?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요. 개인으로 갈 때는 원천세로 영수를 해서 하고요.

정병국 위원장 : 그렇다고 하면 단장님은 뉴서울오페라단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잖아요? 지급하면 추가적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에 신고를 안 합니까?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본인들이 원치를 않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런 게 허위입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그것은 허위가 아닙니다. 저희가 수고비로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주고받고 인건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전부 다 세무 당국에 신고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탈루를 하는 겁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저희는 공연보험까지 다 들고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보험은 다르고요. 단장님 보세요. 배우한테 출연료를 주잖아요? 그런데 배우가 “신고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주잖아요. 세금탈루 공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껴맞췌기 때문에 이게 결국 허위가 되는 겁니다. 이 결산도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파고들어가게 되면 허위로 정산을 하신 겁니다. 이걸 엄청난 문제가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저희들 딜레마도 그것인데요.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밝지가 못해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그냥 지급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것을 결정 내릴 수가 없습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저희는 이 예산의 10%를 더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요.

정병국 위원장 : 그 문제만이 아니고요. 단장님이 아직까지도 저희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계세요. 이해를 못 하고 계십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위원장님, 제가 직접 예산안 하나하나 챙겨서 다시 정리하고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오늘 통과가 안 된다니까요. 지급할 수가 없어요.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공연이 5월이라서요. 제가 문제없게.

정병국 위원장 : 단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단장님이 창작의 어려움. 오페라단을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창작오페라를 만들어서 우리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해외까지 나가시려고 노력하는 것은 높게 평가를 해요.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왜 점검하는지를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국회지정사업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번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만약에 계속 이렇게 두 번 세 번째 국회지정사업으로 오게 되면 제 3자가, 예술가들이 봤을 때는 홍 단장님이 국회를 통해서 특혜를 받는 걸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또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따져야 하는 것은 그런 공모 절차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력에 있어서 이 작품이 과연 해외에 한국을 대표하는 오페라로 나갈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

에서나 다른 오페라단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현장에 나가서 모니터링을 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태국에 가서 번역도 잘못되고 이러저러한 지적들이 있는데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게 나갔을 때 “한국 오페라의 수준은 저 정도구나.” 국가가 지원해서 나온 사업인데 타국민들은 그렇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위를 선양하러 나갔는데 오히려 국위를 훼손하고 오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묻고 따지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냥 국회에서 온 것이니까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고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왜 저희가 인심을 잃어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리고 지난해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그것을 시정하려고 하고 같이 노력하면 이런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잖아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저희가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예술위 직원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월이 공연인데 4월에 심의를 하라는 게 타당합니까?

정병국 위원장 : 지금에 와서 심의를 하게 된 이유가 뭐니까?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3월에 저희가 보고안건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극장이 확정되지 않아서요.

정병국 위원장 :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조해서 했는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급조는 아니고요.

정병국 위원장 : 보세요. 저희가 국제교류사업으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단년도 사업이고 사전에 현지의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연말에 결정을 해도 장소를 정하는 게 어려워서 부실하게 돼서 하지 못하는데요. 이것은 장소도 결정되지 않고 늦게 결정돼서 한 달을 남겨놓고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1월에 2개 극장을 가지고 계속 조율을 했을 뿐입니다. 극장을 급조하거나 한 일은 없습니다. 2개 극장을 가지고 계속 조율을 했습니다.

정갑영 위원 : 2개 극장이고 3개 극장이고 확정을 미리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달라는 얘기죠. 5월이 공연인데 4월에 이것을 내놓고 뭘 봐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한테도 묻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1년 전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송시경 사무처장 : 사무처의 생각인데요. 5월 15일부터 하려면 비용이 먼저 들어가야 할 겁니다. 작년에 팔공산오디세이 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을 제시해 드리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서면으로 받아서요.

정병국 위원장 : 아니, 그것을 떠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요. 다음 달에 공연할 것을. 지금 몇 달 연습하셨어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1월부터 연습을 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1월부터 연습을 했으면 그분들에 대한 연습비 등을 지급하나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저희 자체 자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저희는 내신 계획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 계획서에 근거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건데요. 첫째 가장 큰 문제점은 5월 15일에 하면서 한 달 전에 심의를 해 달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둘째 회계내역도 잘 납득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대안을 얘기하는 모양인데요. 이런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무처가 그냥 넘어갈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담당자와 사무처장님, 위원회가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회의를 해 왔는데요. 5월에 공연하는 것을 4월에 심의하도록 안건을 만들어서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정숙 위원 : 그러니까 극장을 1월부터 조정했다면 그 조정된 내용을 넣어서 발표를 미리 했어야 하는 건데요. “1안과 2안이 있고 조정 중이다.” 라고 해서 확정 전이라도 보고를 했어야 시기적이나 절차적으로 타당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공연은 치러져야 하고 국가와 국가 내지는 예술단과 예술단, 도시와 도시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존중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무처에서 대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갖고 수용해 줘야 하지 않을까? 다만,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다시 서면으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갑영 위원 : 책임질 분은 책임을 지세요. 이렇게 되면 이번 한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훈경 위원 : 사업추진절차에 보면 2월에 대관 확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월까지 대관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저희가 2개 극장을 조율했고 날짜를 계속 조율했습니다. 극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훈경 위원 : 아니요. 극장 확정이 아니라 대관 확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극장과 조율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극장과는 날짜를 갖고 조율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장이 없거나 대관이 안 되었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단장님이 이런 공연을 한두 번 하지 않았을 텐데요. 극장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 또 극장이 확정되고 2개월 남겨 놓고 “예산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 누가 예산을 줍니까? 그렇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단장님이 위원이 되었어요. 위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동의할 수 있어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죄송합니다. 저희는 1월이 아니라 2월 정도에 신청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저희는 계속 저희 자체 자금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1월부터 신청해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일정을 연기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렇게 하면 2월이나 3월에 첫 스타트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병국 위원장 : 모든 사업이 이미 연말에 국회 통과가 되면서 확정이 되었잖아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그건 12월이기 때문이에요.

정병국 위원장 : 12월이면 그때부터 준비하고 1월에 이것을 신청해야죠. 1월에 신청하고 5월에 하는 거면 저희들이 3개월 전에는 이미 예산집행이 되어야 단장님도 일이 수월하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 남겨놓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줍니까?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죄송합니다. 저는 1월에 신청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2월이나 3월에 신청해야 되는 것인줄 알고 저희 자체자금으로 계속 몇 억 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갑영 위원 : 이런 사례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진각 위원 : 제가 이해하기로는 뭔가 퍼즐이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까지 추진해 오신 게 상식적이지 않고요. 해외공연을 한 달 남겨놓고 신청해서 예산을 지급해 달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저희는 작년에 결정되었고 올 1월이 아니라 2월 정도에 신청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김진각 위원 : 그것 말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그것은 아니고요. 2월에 신청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보통 1월은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2월에 신청을 했나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구정 지나고 저희는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김진각 위원 : 2021년부터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4년째 하고 있는데 사무처로부터 통지를 받았을 것이고요. 대단히 기본적인 방식인데 그것을 그렇게 대답하시면 설득력이 없죠.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자체자금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었어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자체자금으로 하시고요. 다음 달에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접수해 드릴 테니까

그때 이 예산을 교부받으세요. 그러시면 되겠네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그러면 공연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병국 위원장 : 지금까지 자체자금으로 하셨다면서요.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도 검증이 안 되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집행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저희가 남은 시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연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연주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있고요. 현재 거기에서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랐던 부분은 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혹시 1월, 2월 정도에 올라왔었나요? 저희한테 언제 들어 왔나요?

김의숙 교류협력팀 차장 : 작년에는 6월이었습니다.

이훈경 위원 : 2022년 6월이요?

김의숙 교류협력팀 차장 : 2023년 6월.

정병국 위원장 : 보고 들어온 게 언제 들어왔어요?

김의숙 교류협력팀 차장 : 3월이었습니다.

이훈경 위원 : 공연이 언제였어요?

김의숙 교류협력팀 차장 : 6월이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도 4개월을 남겨놓고 했잖아요. 그런데 3월에도 못 올리고 2월에도 못 올리고.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지금이 3월 위원회니까요.

정병국 위원장 : 2월에 못 올린 이유가 있어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못 올린 것이 아니고요. 준비가 안 된 것도 아니었고요. 그것을 잘 몰랐을 뿐입니다. 1월에 올리는 건 몰랐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우리 사무처에서는 언제까지 올리라고 독촉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2월, 3월 중에 위원회 보고를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고요.

정병국 위원장 : 얘기를 듣고 왜 안 올렸어요? 모르신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모르는 게 아니라 저희는 1월에 올리는 건 몰랐고요.

정병국 위원장 : 단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항변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우리 사무처에서 2월에 올리라고 통보가 갔다면서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저희가 3월 초에 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출장도 다녀왔고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제가 그때 날짜가 말일이나 16일이나를 조율하느라고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날짜를 조율하면 5월에 어떻게 상식적으로 되냐는 겁니다. 연말이나 후반기로 확 밀어서 공연할 생각을 했어야죠.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저희가 15일, 16일이나 29일, 30일이나를 조율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김진각 위원 : 연기 자체가 안 되나요? 현지 공연에 대해 연기가 안 되나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현재로서는 연기가 불가능하고요. 그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진각 위원 : 국제공연 같은 경우에는 연기가 되거나 심지어 취소가 되는 경우도 다반사인데 꼭 연기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저희는 항공 예약도 벌써 한 달 전에 했고요.

정갑영 위원 : 지금 항공이 문제가 아니고요. 오페라단, 우리 사무처, 우리 위원회 셋 중에 어디 하나는 데미지를 입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한 달 남겨놓고 지원해서 통과시켜주면 위원회는 외부로부터 굉장히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알려질 것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곳이 한 달 남겨놓고 공연한다고 신청한 것을 그대로 통과시켜줍니까? 위원회가 문제가 있든지, 아까 말씀한 대로 오페라단과 사무처 사이에 시간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사무처가 문책을 당하게 생겼고요. 오페라단은 지금 지원받지 못하면 공연을 못 하니까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어디 하나는 걸립니다. 이것은 누가 더 손해를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위원님들 말씀 저희가 시정할 부분은 다 시정해서 남은 시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단장님,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참여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생각해서 이것은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장님을 봐서가 아니라 연습을 3개월 동안 하고 있는 예술인들은 이게 엮어지면 생계와 직접적인 예술적 창작활동이 연계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단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사업계획서를 보면 도저히 통과가 될 수 없거든요. 앞에서 계속 나온 것처럼 퍼즐도 안 맞고 예산도 안 맞고 항목도 안 맞고요. 심지어 작년은 6월 공연인데 3월에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5월 공연인데 4월에 들어온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지원심사에서 떨어져보신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원심사에 이렇게 넣어서는 안 되죠. 당연히 떨어지는 서류죠. 그것을 다 꺾어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넣으신 것은 말도 안 되는 절차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

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연에 참가하고 있는 예술가들을 생각한다면 고민되기는 합니다. 이것은 절대 단장님이나 예술단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창작예술가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오늘 집행을 하기는 하는데요. 실행을 하고 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나갈 겁니다. 지난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시정되지 않거나 올 연말에 결산을 했는데 지금과 같이 서류상으로만 보지 않을 거예요. 결산을 저희들이 직접 검증할 겁니다. 검증을 하고 나서 여기에 허위가 있거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시면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환수한다는 전제하에서 동의를 했으니까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도록 하고요. 이것은 이훈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뉴서울오페라단 때문이 아니라 예술인 때문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면, 또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을 전제로 해서 집행하는 것은 어떨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숙 위원 : 예, 동의합니다.

정갑영 위원 :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반복되면 안 됩니다. 한번 큰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훈적인 사례가 필요하지 사족을 달아서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뉴서울오페라단이 처음 신청한 거라면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러 번 지원 심의도 신청해 보셨고 이 사업이 계속된 것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한 달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설명해도 납득이 안 돼요. 어떤 생각으로 한 달 전에 하셨어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저희가 한 달 전에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신청은 3월 초에 제가 출장을 다녀오고 날짜를 조율하고 한 달 전에.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왜 지난달에 이게 안 올라왔죠?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위원회 회의가 3월인데 시차가 있었습니다. 2월 말과 3월 말 사이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3월이니까 지금 올라온 것이죠. 그러니까 2월에 했어야 2월말에 심사를 했겠죠.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맞습니다.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제가 2월말에 또 출장을 갔었어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절차상 제일 중요한 게 장소가 결정되었어야 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보통 심사를 할 때는 장소가 확정된 상태 속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홍지원 뉴서울오페라단 단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지금 단장님 말씀처럼 장소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냥 국회에서 지정사업으로 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면 신청자격

조차도 없는 거예요. 왜 국회지정사업은 피치못할 사정 외에는 하면 안 되는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수정 보완해서 일주일 내에 수정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병국 위원장 :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절차상 저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단체한테 이 국고 예산을 지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이 안서는 겁니다.

정갑영 위원 : 그냥 “국회에서 올라온 건 당연히 간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한테 뭐 때문에 요청을 합니까?

정병국 위원장 : 일단은 오늘 여기에서 수용할 수는 없고요. 추후에 다시 저희들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보고안건은 2025년 베니스비엔날레 제 19회 국제건축전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 결과에 대해 유병은 베니스비엔날레 전시운영TF팀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2025년 베니스비엔날레 제 19회 국제건축전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결과입니다.

우선 내년에 개최되는 국제건축전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개최 예정이고요. MIT출신의 건축가이자 엔지니어인 ‘카를로 라피’라는 분이 예술감독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내년 전시 주제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5월에 발표 예정입니다. 추진 경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베니스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이 2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송시경 사무처장님이 당연직이고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된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문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자문을 진행해 주시고, 이 자문운영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 후보군을 추천해 주시고 섭외순위를 선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91쪽을 보시면 상단 표에 선정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선정위원회 명단이 확정된 후에 저희가 올해 1월 3일부터 2월 16일까지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총 4건이 접수되었고요. 2월 27일 1차, 3월 21일 2차로해서 최종 선정 1개 팀을 결정했습니다. 팀은 CAC라고 Curating Architecture Collective입니다. 이 팀은 3인의 공동예술감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 ○○○, ○○○ 예술감독입니다.

그리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예비지원대상자 1인을 더 선정하셨고요. 이 내용은 공지 결과발표 때는 일단 올리지는 않는 결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내용을 오늘 보고드리고 사업추진을 확정해 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 날 홈페이지에 공지를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제 문체부에서 의견을 하나 주셨습니다. 보시면 92페이지 박스에 ○○○, ○○○님이 있는데 한 분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사고 한 분은 서울시 박물관과 학예연구사라서 한 분은 국가공무원이고 한 분은 서울시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겸직 내용에 대한 우려사항을 조금 표명해 주셔서 어제 인사혁신처에 여쭙봤더니 공무원 겸직은 소속 기관장의 재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원래라면 오늘 확정해 주시면 다음 주에 공지를 올리는 것으로 할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회의가 끝나고 이분들과 상의를 드려서 확인 여부에 따라서 공지를 올릴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참고로 ○○○ 학예사님은 2018년에 박성태 예술감독님 때 추진단 멤버로서 이미 큐레이터로 활동을 하셔서 저희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혹시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을 예측했다고 하면 사전에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서승미 위원 : 예술감독 3인이 공동이라는 말씀인가요?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맞습니다.

장보경 베니스비엔날레 전시운영TF 차장 :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할 때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거쳤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했구요. 선정 회의 때는 논의를 하지는 못 했고요. 어제 문체부에서 우려를 표명했을 때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법을 다 검토해 봤을 때는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언을 드리자면 결과 발표를 하기 전에 오늘 회의에서 보고가 접수된다고 하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승인가를 받았는지를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월요일에 보도자료와 함께 결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오늘 올라오기 전에 왜 확인을 못 했느냐는 거죠.

장보경 베니스비엔날레 전시운영TF 차장 : 그 당사자들에게 현재 발표가 되어 있지 않고 미공개 상태라서요.

정병국 위원장 :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장보경 베니스비엔날레 전시운영TF 차장 : 예, 맞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다음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일단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비공개입니다. 아직 오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본인에게 확인이 들어가면 알려 질까봐 확인을 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실무진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여기에 응모할 때는 당사자들이 기관장에게 응모하겠다고 했을 거다. 했을 수도 있다는 전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기관장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탈락하는 거예요?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2순위 후보자가 선정되는 것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차순위를 만들어 놓은 건가요?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그래서 보고 후에 발표를 하고 소속기관장 허가를 요청할지 또는 발표 전에 먼

저 확인을 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확인부터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보고가 끝나고 발표를 하기 전에 바로 당사자들이 기관장의 동의를 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뒤에 발표를 하고요. 그게 안 되면 다시 열어야 되나요?

강보경 베니스비엔날레 전시운영TF 차장 : 그렇지 않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냥 차순위로 발표하는 건가요?

강보경 베니스비엔날레 전시운영TF 차장 : 예, 맞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이런 절차 말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거나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해 주세요.

김진각 위원 : 국가공무원 소속이 예술감독을 한 사례는 없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강보경 베니스비엔날레 전시운영TF 차장 : 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 학예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부큐레이터로 참여를 했었고 저희가 보도자료에도 2011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보도자료 내용에도 같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다른 비엔날레나 비슷한 행사의 운영자문으로도 몇 년간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공무원이면서 했다는 거죠?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 위원 : 문체부한테 질의한 것은 왜 했습니까?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문체부에서 이 사실을 알고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주셔서 오늘 여쭙보게 되었습니다.

정갑영 위원 : 이런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에 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김미라 위원 : 사실은 2018년도에 하셨다고 선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2018년도에는 겸직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2~3년 사이에는 회의에 나가는 것도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비용 받는 부분도 얼마 이상은 안 되는 등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칫 누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지금은 최대한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좀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면서 느껴서 한 가지 의견을 드리면, 올해 저희가 베니스비엔날레 미술 쪽 행사를 하면서 여러 우연들이 겹쳐서 미술관 관련 협력전시도 많아졌고 굉장히 이슈가 되고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시가 오픈되고 나면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내년 건축비엔날레를 할 때 건축계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소외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제교류부에서 비엔날레를 쪽 해 오

시다가 작년부터 미술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서 우연치 않게 올해 선정된 팀들이, 미술관 학예사팀들이예요. 내부적인 심의 주제들을 보니까 굉장히 이 팀이 신선한 주제를 냈다고 보여 집니다. 4개의 주제 중에서 제가 보기에다 굉장히 신선한 주제라서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외부에 단순 선정 팀의 이력만 발표되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대응을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관련해서 내년에 이 팀이 가잖아요. 가시게 되면 이 팀의 3인이 모두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40대 전후반으로 굉장히 젊은 분들이라서요. 오전에도 잠깐 그 얘기를 했으나 결국 어떻게 보면 예전의 예술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되셨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지명도에 따라서 그 행사에 대한 비중과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축계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무관심으로 일관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행사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기왕에 이 팀들이 선정되어 전시를 잘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으로 조금 더 홍보 포인트를 잘 잡아서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야 돼서요. 올해 현장에 가서서 미술계 쪽 기자간담회도 하고 현장도 다 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행사의 결과보고를 하실 때 이러한 점이 있으니 내년도 건축비엔날레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살피게 되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 잘 되겠다는 전략적 대응방안이 결과 보고서에 좀 반영되어서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말씀하신 내용을 잘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두 분에 대한 기관장의 동의를 득해졌을 경우에는 이분들로 결정이 되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차순위로 결정된 사람이 결정되는 것으로 해서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네 번째 보고안건은 202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간감사 건에 대해서 정영순 감사실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순 감사실장 : 2023년도 저희 위원회 연간감사 결과를 지난 위원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으나 회계감사 마무리를 지어야 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2월말까지 알리오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게 공개된 자료로 오늘 보고를 드리고요. 사실 이 자료는 어떤 감사를 몇 회를 했고 몇 개의 처분을 하고 어떤 것들을 했다는 정도의 통계자료인데요. 감사실의 업무에 대해서 오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수치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주로 감사님과 함께하는 대내외 감사 그리고 뉴서울CC와 관련된 것. 그리고 각종 민원, 그리고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감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각종 제도개선이나 권고사항 그래서 내부의 반부패 요인이나 청렴에 대한 문화 조성인데요. 이것은 사실 우리 기관장님과 함께 하고 내부의 ESG경영의 거버넌스에 관한 부분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감사실 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자료에 기반한 반부패 청렴이 아니라 정말 내재화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할 것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부에는 공유가 되었지만 2023년도에 저희가 종합청렴도라고 해

서 권익위원회에서 했던 조사에서 1개 등급을 상승하며 3등급으로 올랐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부패 요인과 부정적인 의견을 통해서 몇 년 간 고심을 많이 했고 그런 것을 개선하면서 기관개선 의지 부분에 1개 등급이 올라가서 나주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 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올해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체감이나 청렴도, 부패보다는 내부적인 체감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평가를 받지 않는 기간 동안 이것을 기관장님과 저희 감사실에서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저희의 방향입니다. 감사 결과보고는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외부감사에 문체부 감사가 있었는데 3회 감사, 보조금에 관련된 것 그리고 저희 외부자원 활용 실태, SNS 등에 대한 보완관리 실태점검이 한번 있었고요.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아시겠지만 남북문화예술교류사업과 관련해서 관리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것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여기 자료에는 세 번째에 ‘진행 중’ 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재심의를 요청했는데 기각이 되었고요. 환수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감사는 작년에 사실 감사님도 새로 오셨고 저희 내부 감사실의 인력과 인프라가 많이 교체되면서 기존 감사 건수보다는 줄었으나 주로 보지 못한 부분. 임직원 교육훈련이나 자체사업 추진실태 그리고 복무점검, 보조금, 계약 등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6건을 실시해서 총 17건의 처분이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99쪽 일상감사 처리현황은 그냥 통계자료만 참고하시면 될 텐데요. 일상감사는 사실 주요 정책 집행이 표에 나와 있는데 위원회 의결사항이라든지 위원장님까지 결재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일상적으로 감사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업무, 예산관리 등 전반을 보면서 일상감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야 앞으로 감사지적도 받지 않기 때문에 연간 725건을 작년에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쪽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지나간 것들은 다 처분이 끝났고 2024년도 3월에 뉴서울 CC에 대한 종합감사를 어제까지 실시했고요. 종합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연간 계획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0건의 종합, 성과, 특정감사를 계획하고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복무점검을 올해는 조금 더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부 활동이나 출장, 근태 등을 종합점검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감사실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베니스비엔날레 30주년 특별전을 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우리 위원님들께 전화까지 드리면서 모든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변화되는 미술의 트렌드를 보기를 바랐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다함께 못 모시고 가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가시는 분들도 합당한, 제대로 된 예우를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가능하면 새로운, 다른 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업들을 직접 경험하시고 현장 네트워킹도 하셔야 우리 위원회의 질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예산상의 제약도 있고 일반적으로 공무원 체계에서 준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담당 분야는 해외에 나가서 직접 네트워킹도 하고 현장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 나가시는 분들은 다음 차례에, 올해 한 번씩은 다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역소멸에 대해서 문화예술적 차원의 접근으로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도 각 사업들이 지역 문화균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전부 다 일회성으로 끝나고요.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 ‘작은 미술관’ 이런 사업들이 기획자 중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기획자들이 잘 기획을 해서 제안서를 쓰고 통과가 되었을 때 3년 지원이라고 하면 3년 지원이 끝나고 나면 철수하면 작은 미술관도 없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파악해본 결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 지역을 선정하는 거죠. 권역별로 호남권, 영남권, 중부권 등으로 해서 3군데에 집중 지원을 할 모델이 될 만한 지역을 선정하는데 선정조건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는 곳. 그러면서 관과 주민과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한 데를 선정하자고 해서 선정절차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지역소멸 지원금을 집중해서 지원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 지원사업들을, 선정된 지역들은 별도로 공모하지 않아도 그 지역은 지역 선정과정 속에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하나씩 다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집중해줘서 뭔가 변화되는 것을 한번 보자고 해서 올해 1년과 내년까지 해 보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활성화 시켜주고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 지역선정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을 감안하고 보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4월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사무처장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일정 조정)



6.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4월 위원회 전체회의는 4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0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17분 종료)